

詩經研究(1)

天台山人

卷頭言-本稿는 主로 中國 新人들의 新研究를 綜合한 것으로 筆者의 研究나 創見으로 하기에는 너무도 破廉耻하다. 參考書로서는 蔣善國氏의 三百篇演論, 許嘯天氏의 分類詩經, 謝無量氏의 詩經研究, 謝普青氏의 詩經之女性的研究, 郭沫若氏의 中國 古代社會研究等を 參互하였고 그餘에도 이 方面에 關한 著述이 筆者의 眼目에 比초인것만으로도 十種을 不下하나 갑자기 써보려는 案頭에 그러한 冊子가 없기 때문에 充分히 參酌하지 못한것을 遺憾이라 하겠다. 俗談에 「孟子를 千讀하면 訟事질을 잘하고 詩傳을 千讀하면 外入쟁이가 된다」 든가? 그러니 말이지 아즈랑이 동산에 꽃이 필적에 詩三百篇을 朗吟하면 幽興이 陶陶한 느낌을 갖게 된다. 甲戌年 새봄을 마지하메 詩經에 對해서 在來로 마음 먹었던바를 적어보기로 한다.

一. 詩經의 作者와 刪詩問題

中國上古의 時勢와 文化思想의 面目을 엿보려면 「詩書, 易」三經에 限할뿐이다. 인제 나는 이三經을 單純히 古典的 價值뿐만이 아니라 그보담 큰 漢族의 結神生活이 遺憾없이 表現된것을 본다. 그런中에도 純粹히 感情의 流雲하는것을 보여주는 文學的 價値로써 期待되는것은 詩經 三百 五篇(通稱 三百篇)이 있을뿐이며 그詩經속에서도 가장 眞摯하고 平民的이고 自然的으로 된 優美한 作品은 十五國風뿐이니 國風은 機械的이고 乾燥無味한 御用的 口氣로 채운 雅頌과 同日에 論할수없다. 文學的 價値에 있어서만 아니라 時代的 意味에 있어서도 흙 냄새가 濃厚한 上代民謠로서의 國風과 宮廷廟堂에서 人工的으로 만들어 읊은 雅頌과는 그의 주는 感賞味에 크다란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詩 三百篇에 對한 編輯主任의 役割을 演出한 사람을 往來의 俗說대로 위선 大成至聖의 孔子라고 假定하고 나의 原稿를 나위려 한다. 果然 從來의 말처럼 저 「三月無君大恐慌, 一車兩馬跑四方」이라고 謳歌되던 孔子가

列國을 轍環하는 囟囟한 겨를에 그와 같이 龍大한 歌謠集을 蒐集하셨다면 至聖의 功績은 좀더 偉大하게 評價되어도 좋으리라.

詩는 사람의 短的情緒의 自然的 表現이요 美의 空想的 韻律的 創造라고다 할것으로 어떠한 階級과 人物을 不問하고 天真爛漫하고 性情이 活潑하여 어떠한 意匠이 있으면 스스로 模寫되는 것으로 이에 「詩言志」의 定義도 近理한 말이라 할것이다. 描寫 技巧의 巧拙을 論할바가 아니다. 孔學의 眞系를 紹述한 朱熹의 說을 빌려 말하면

「사람이 나자 靜한것은 天性이요 物에 느껴 動하는 것은 性の 欲이니 이 欲이 있으면 생각이 없지 못할것이요 생각이 있으면 말이 없지 못할것 이요 말이 있다면 그말이 끝할바를 모르므로 咨嗟咏歎의 餘에 發하는者 반듯이 自然의 音響節族이 있어서 말지 못할것이니 이것이 詩의 由來이니 라」(詩序)

이처럼 「物에 느껴 움직인바 性の 欲을 노래한 것이 詩라」하는 功利的 口調는 朱熹뿐만 아니라 古來에 많은 學者에 依하여 說明된것이지만 高尚 純潔한 詩人은 自然 眞摯한 作品을 어데까지든지 自己의 功利心으로 說明한데 는 詩의 本義가 알려질 까닭도 없고 이는 必然 數千年동안 詩經으로써 荊山에 埋沒된 白玉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謬見은 벌써 編輯主任이라는 자가 犯하고 있으니

「子貢曰詩云如切如嗟，如琢如磨，其斯之謂與，子曰賜始可與言詩已矣，告諸往而知來者」

「子夏問曰功笑倩兮，素以爲絢兮，何謂也，曰

孔門에 노닌者 三千에 올랐다고 하면서 과연 詩이야기 할만한 相對者가 이 두사람밖에 없었을가? 代의 歌謠大觀에 지나지 않는 詩 三百篇을 너무도 崇尚하게 神秘하게 받은 것은 아니었던가? 論語 一部■에는 相當히 詩經을 批評한 文字도 있지만 極히 公平하게 眞實을 말한 것으로

「子曰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

詩經을 編輯한 것은 孔子로서는 得意한 事業의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는 到處에 雄辯을 吐하여

이것이 孔子의 詩經에 對한 全幅的 見解이다. 詩가 讀者로하여금 「興」, 「觀」, 「羣」, 「怨」의 情을 惹起한다함은 까닭 있는 말이지만 이로써 君父에 事하겠다든가 草木鳥獸를 안다든가 하는 것은 詩經本來의 目的은 아닐 것이니 君父에 事할 길이 詩經의 어느 「폐지」에씨여 있는가? 또 草木禽獸

의 物名을 알려면 차라리 本草綱目이나 動植物 百科辭典을 篇할 것 아닌가?
더구나 詩 三百篇을 읽은후에 授하기를 政으로써 한다는 段에 이르러서는
言語道斷 詩經과 政治와 무슨 關係가 있었던가 여기도 그의 熾烈한 仕官慾
과 功利心を 보여주고 있다 또

에 나타난「淫」字의 解釋이다. 만일 說文처럼 久雨日淫이라고 해석하면 別
問題이지만 訓詁家가 「男女不以禮交, 謂之淫」이라는 말은「詩三百, 一言以
蔽之, 曰思無邪」라는 말과는 너무도 矛盾이 되지 않느냐? 東洋諸國 特히 中
國에 있어서 가장 힘 있는 思想은 學優則仕라는 잘못된 思想으로 이는 畢竟
官尊民卑의 痼習을 오늘까지 남기고 있으며 人生의 最高 目的은 가장 顯貴
한人物이 됨에 있었다. 무릇 學問을 하는것은 官吏될것을 因果的으로 豫期하
고 있는것이였다. 이 때문에 사람마다 古典을 研究함에 있어서도 穿鑿附會하
여 貴族을 贊揚하며 聖朝를 謳歌한것이라 하여 事實의 吻合與否를 不問하고
무엇이든지 聖朝貴族과 關係시켜서 說明하고야 말려고 한다. 더구나 國風 같
은것은 民間詩人들이 自然을 謳歌하며 性情을 抒寫한것이며 不拘하고 얼토
당충지 않은 文王 武王을 끌어오고 孟姜莊姜을 갖다댄는 것은 噴飯一笑의
資料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錯誤는 毛, 齊, 魯, 韓뿐만 아니라 鄭玄, 孔
穎達, 朱熹같은 幾多의 訓詁家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로 犯하고 있는지라 卷頭
第一인 毛詩序에

「關雎는 后妃의 德이요 風의 始라 上下를 風하여 夫婦를 발으게 하는바
라……우로는 씨 아래를 風刺하고 아래로는 씨 우를 風刺하여 主文譎諫 이
를 말하는者 罪없고 이를 들은者 씨 경계함에 足한지라 그런故로 風이라고
한다……이로써 一國의 事는 一人의 本에 繫하나니 이를 風이라고 한
다……그런지라 關雎麟趾의 化는 周公에 繫하고 鵲巢騶虞의 德은 諸侯의
風으로서 先王의 가르친것이니 이를 召公에 繫하였다. 周南召南은 正始의
道로서 王化의 基가 된다. 이로써 關雎는 淑女를 얻어 君子를 配함이다」

하였다. 얼마나 狐話냐. 朱熹는 다시 大膽하게

「周文王이 나자 聖德이 있는지라 聖女 姒氏를 얻어 配를 삼으니 宮人들
이 그 幽閒貞靜한 德있음을 보고 이 關雎詩를 지었다」

라고! 要컨대 그들은 詩가 社會的 時代的 産兒요 歷史的 機械的 敘述이 아
닌것을 알지 못한다. 詩의 背影에 나타난 時代라는것은 普通史家の 年代로써
는 規定할수 없는것이므로 詩經 三百篇도 周나라의 中葉또는 그以前の 社會
를 背景으로한 産物인것을 잊어버리고 한갓 어느詩는 某時 某人の 作이라고

斷定하는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孔子가 만일 編輯하셨다면 그는 어째서 大書 特筆하여

「이詩는 某公 某王 某后의 作이라」

라고 쓰지 않았던가. 그리고 關雎一詩에 限하여 「關雎樂而不淫, 哀而不傷」
이라는 抽象的 批評밖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가? 무엇이 后妃之德! 무엇이
王者之風! 무엇이 周公에 繫하고 무엇이 召公에 繫한다는 鬼笑孤話는 대체
어데서 나오는것일가?

그實 關雎一詩는 가장 通保的이고 詩格도 가장 純潔한것이니 卽

「關關雎鳩, 在河之洲」

「參差荇菜, 左右流之」

와 같이 自然世界를 描寫한 詩句가 每日 自然의 世界에 接觸한 民間詩人이
아니고서야 到底히 써내릴수없는 것이다. 生活■■하고 官廷냄새 나는 紈袴
羅裳의 口吻으로서는 卽 膏粱을 먹고 文繡를 입은 貴××后들로서는 絶對로
이처럼 高尚하고 純潔한 思想을 産出할수 없는것이 勿論이다. 漢高祖의 大風
歌는 어텐가 草澤의 氣를 脫하지 못한 點이 있는것 같은데 漢武帝의 秋風辭
에 이르러는 다 같이 氣宇가 豁하지만 「樂極生悲」의 紈袴公子를 免하지
못할 곳이 있지 않으나 思想과 人生과의 相關關係는 毫釐도 假借를 許하지
않을만큼 密接한 것이다. (詩經之 女性的 研究에 依함)

× × ×

그러면 말머리를 還元하여 孔子의 刪詩問題를 質正하여 보기로 하자. 司馬
遷의 쓴 史記의 孔子世家에

古者詩三千餘編, 及至孔子去其重, 取可施於禮義, 上采契后稷, 中述段周之盛,
之幽厲之缺, 始於衽席故曰 關雎之亂, 以爲風始, 鹿鳴爲小雅始, 文王爲大雅始,
三百五篇孔子皆絃歌之, 以永合韶武雅頌之音」

後世刪詩의 說은 모두 이에 根源하는 것이다. 이는 論語의 一句

「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

에 依하여 지나쳐 생각한데서 생겨난 錯誤일것이다.

漢書藝文志에는 史記의 說에 依하여

「孔子純取周詩, 上采殷, 下取魯, 凡三百五篇」

이라 하였다. 後世 研究者들은 저절로 三派에 나누어서

1. 史記대로 孔子刪詩를 肯定하는者
2. 史記를 좇지 않고 刪詩를 否定하는者
3. 孔子가 刪詩한것이 아니고 論語에 싸운 말과 같이 樂을 正히한 程度라는 折衷者等이다.

僞書序에 孔子의 刪詩를 말하여 있지만 孔穎達의 正義에는 이것을 疑心하여 있고 韋詩考定에는 또 「孔」을 反駁하여 甲論乙駁을 거듭하고 있다. 歐陽脩는 말하기를

「지금 書經에 실린 逸詩 어떻게 헤일것이나 鄭康成의 詩譜로써 밀우어 보면 十君을 更하여 그 一篇을 取한者 있고 또 二十餘君에서 그 一篇을 取한者 있으니 이로써 보건대 어찌 古詩 三千뿐이라」

王崧의 說諱에는

「刪詩는 全篇을 刪去하는것이 아니라 어느篇에서 그章을 刪한다는 말」이라하여 周子醇에 이르러 다시 敷衍하되 朱熹는 다만 史官의 編次한 詩集이 孔子때에 芟서 散佚한것을 孔子가 새로 整理하였을뿐이라 하여

「人言夫子刪詩，看來只是采得許多的詩，夫子不曾刪去，只而刊定利己」

라고 하였다. 朱彝尊은 當時의 詩가 三百篇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三項의 理由를 들되

1. 詩가 三千篇 있었다 하면 輶軒의 采한바는 定코 十三國에 머물지 않겠지 만 季札이 본 樂과 노래한 國風은 十三國에 지나지 못하며
2. 孔子가 때때로 「詩三百」, 「誦詩三百」이란 말을 스스로 말한것은 그가 自刪한후에 이런 固有名詞를 만들어 썼다고 할수도 없고
3. 詩數 三千이나 되면 樂師朦朧하여 어떻게 다 記誦할것인가
4. 國語와 左傳에 나타난 列國宴亭詩贈答歌가 相當히 있지만 逸詩는 極히 적어서 1/20, 1/30 에 不過하니 이로써도 古詩 三千이 있었다고는信하기 어렵다.
5. 孔子가 만일 刪定하였다면 王朝列國의 臣을 一一이 어느 標準에 依하여 어느것을 信하고 한것인가?

考證으로 有名한 清代學者 毛奇齡도 論語에 「詩三百」「誦詩三百」이란 말이 있는以上 스스로 詩를 刪定하여놓고 得意하게 詩三百이라고 스스로 引用하였을 理가 없고 그 篇仕도 襄公 廿九年 季札이 樂을 본때보다 뒤떨어져 芟서 今本 三百篇과 서로 같고 決코 孔子의 刪詩에 史實이 없었다고 斷言하였으며 그後 汪琬, 皮錫瑞같은 사람은 다 孔子은 樂을 받으게 하였을뿐이라고하여 史記의 說을 否定하고 있다.

王崧은 다시 말하기를

「史記所謂古詩三千餘篇，盖太師所采之數，迨比其音律，聞於天子，不過三百餘篇，何以知之，采師非從存其辭，乃用以爲樂章也，音律不協者棄之，即協者尚多而此三百餘篇於用已足，其餘但存之太師，以備所用之或■」

要컨대 以上은 刪詩의 肯定, 否定, 正樂의 三說에 나누어 있는것을 말하

여 왔지만 淸나라 趙坦은 史記孔子世家의 「去其重」이란 三字에 中心을 두고 따로이 一說을 세워 말하되

「刪詩之旨可述乎，曰去其重複焉爾」

이를 合理的으로 說明하려면 周朝의 詩도 孔子以前의것은 古詩속에 包含되어 奏樂때에 周樂을 奏함도 도리어 周詩의 專書를 버서나지 못하니 孔子가 衛로부터 魯에 돌아와 비로소 周詩와 古詩와를 分離시켜 當時 樂을 奏하는 順序를 따라 周詩의 單行本을 냈는지도 알수 없다.

그렇다면 刪詩의 事實은 없었을것이다. 다만 太師奏樂하던 順序대로 重複殘缺된 部分을 버리고 古詩에서 一部周詩의 專書를 編成한것 아닌지? 그러므로 三百篇은 周詩요 古詩도 商詩도 아닐것이다. 그 叙述者 와 노래한 事實이 商代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周朝와 關係 있을것만은 疑心 없다. 그렇지만 三百篇이 모두 周詩라고 하는데는 다음 四條에 對한 辨明에 窮한다.

1. 周代以前의 古詩는 왜 後世의 子史에 全然 실려 있지 않는가?
2. 周一代의 詩의 採集을 不公平하게 十五國風에 멈추었을까
3. 왜 詩經에 高詩가 있을까
4. 왜 上古로부터 周代까지의 古詩에 逸詩가 있을까

以下는 이 四條에 對한 變名을 加하기로 하자.

× ×

第一에 對한 解答……上古의 詩樂은 新樂의 流行과 함께 자취로 감추고 譜가 있어도 奏하지 아니하여 徒詩가 된것이 많다. 九韶等에 周代에 멸서 稀貴해서 博學이 孔子같은이도 齊에 가 비로소 留를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周代는 「郁郁乎文哉」라 하여 文化가 飛躍의으로 進歩한 때여서 누구든지 詩樂에 對한 一般의 理解는 있었겠지만 商朝는 質을 崇尚하여 詩樂도 스스로 盛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리하여 當時의 詩集이 民間에 잘 通行되지 않고 또 專書가 적기 때문에 孔子가 魯에 돌아와 國史에서 詩의 專書를 얻어 當時의 古詩樂은 멸서 一般의 理解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에 周詩만으로 單行本을 編成하여 여기 빠진 古詩는 스스로 亡하여 後世子史에 引한 詩도 많이 周時 三百篇에서 引한것인듯 하다.

第二에 對한 解答……當時의 小國이던 杞, 許, 滕, 薛, 邾, 莒, 江黃은 陳, 魏, 曹, 檜等과 함께 地小德齊한데 어찌서 前者들에게는 詩가 없었을것인가? 이에 對하여 顧炎武, 郝敬等이 여러 가지 牽強附會의 說을 세웠지만 崔述의 說이 가장 옳은것 같으니 卽 그는 刪詩云云은 後人의 臆說이요 古詩가 오래 述傳하는 동안에 愛好誦習, 自然淘汰의 밑에서 스스로 좋은 部分이 남게 되는 것이다.

第三에 對한 解答……商頌은 宋頌인데 春秋때에 宋을 商이라고한 例는 左傳에도 「利以伐姜, 不利于商」, 「考惠娶于商」, 「天之棄商也久矣」等 많이 있다. 대개 魯定公의 名字가 「宋」이기 때문에 魯人이 違하여 商이라고 한 것은 아닐가? 魯人의 習慣上 魯詩를 魯頌이라고 한것과 마치 한가지로 宋詩를 商頌이라고 한것은 아닐가?

弟四에 對한 解答……古詩는 孔子가 周詩만을 單行本으로 하기 때문에 그 殘篇斷句가 남아 있게 된다. 孔子가 일즉 九韶의 樂을 듣고 그 進善 眞美를 稱하였지만 孔子의 말스한 「樂則韶武」中 「武」가 이미 辭가 있었으면 韶가 어째서 辭가 없었으랴. 詩가 처음 나오자 經師가 一一이 다 記誦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佚章逸句가 생겨서 三家에도 「昧任侏■」一句, 「十月之交」一篇이 많고 韓詩에 「雨無其極」一句가 많은것은 그것이다」

要컨대 詩의 散佚은 孔子의 罪가 아니고 詩自身의 厄運이다. (未完)